**1.원격교육에서의 자율적인 학습, 어떠한 학습방법이 요구되는가?**

원격교육은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에 제약이 덜한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적인 학습의 필요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의 세 가지의 학습방법이 수강생에게 요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첫 번째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학습자의 태도가 있어야만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기본적인 학습자의 태도는 자기주도학습, 협동학습, 토론학습 등을 지향하는 태도입니다. 이러한 태도를 고취하는데 원동력인 확고한 목표설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목표가 없는 학습 방법은 loose 혹은 passive한 attitude를 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.

두 번째는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. 비록 원격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때문에 오히려 학습의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가령 수업을 한 번에 몰아서 들으면 학습의 질이 떨어지는 반면에 규칙적인 학습습관은 학습에 대한 효율성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몇 시간 동안 한 번에 수강을 하는 것과 일정 시간을 통해 학습하는 시간의 기억력과 이해력 차이는 상당하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. 그렇기 때문에 원격교육에서 자율적인 학습을 위해선 규칙적인 학습 습관이 필요합니다.

학습환경을 학습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원격교육에서 가급적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익숙한 환경일수록 집중력이나, 학습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

세 번째는 사람은 욕구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. 그렇기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원격교육을 할 때 핸드폰을 꺼놓거나 도서관에서 수강합니다. 그 이유는 집에서 하면 몸이 풀어지고 폰을 만지작 하는 행위로 이어져 결국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에 대한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.

네 번째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학교측에서 수강생리스트를 제공해줘서 수강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방안도 괸찬은 방법같습니다. 같은 학교이면 크게 장소적인면에서도 큰 문제가 부담이 없을 것이며 강의를 수강 후에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최대한 소통을 지향하는 방식의 학습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

**2.원격교육에 대한 문제점,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?**

원격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 다양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우선 컴퓨터를 기반으로 수강하는 교육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의 연령도 다양합니다. 10~30대 수강생들은 쉽게 컴퓨터와 핸드폰을 조작하며 수강에 큰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활용에 대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. 저의 어머님께서도 공인중개사 준비하셨을 때 온라인 인강을 통해 학습을 하려고 하셨지만 ActiveX 설치 프로그램 등 과 같은 것 때문에 결국 화만 내시며 온라인 수강을 포기하신 기억이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격교육기관에서 중,노년층이 더욱 원격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대상으로 따로 교육을 하는 제도라던지 3살짜리 어린이도 쉽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어플 및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클릭만 하면 쉽게 수강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
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면대면 학습이 아니라 아무래도 집중도 저하가 큰 문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긴장감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 학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더욱 수업을 능동적으로 들을 것 같습니다. 가령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업을 청강 시 녹화를 하여 제출을 하는 식의 방법이나 토론 수업을 특정시간에 열어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자기 의견을 주고 받는 식의 방법이 원격 교육을 학습하는 데 있어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온라인 실시간 토론 채팅을 통해 혼자가 아닌 여러명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도도 올라갈 것입니다. 실 예로 저는 스카이프를 이용한 원격 교육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원어민 친구에게 교육을 받습니다.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당한 긴장감을 받을 수 있어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학습 내용을 더욱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스카이프와 같은 실시간 교육이 불가능한 원격 교육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긴장감을 고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. 적당한 긴장감이 학습의 효율성 증대에 큰 공헌을 한다는 부분을 알리고 싶은 바입니다.

그리고 앞서 1번 토론 주제에서 저는 토론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. 그렇기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하여 학습주제에 관한 Communication skills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기관 측에서도 집단 토론을 하는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